

고교유형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문 미 경¹⁾ · 민 현 주²⁾ · 한 성 숙³⁾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유형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학생과 가구 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 '사회적 참여',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정'으로 구분하였다. 고교유형과 부모교육수준이 고등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자아실현',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회적 인정', 마이스티고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직업가치보다 "생계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은 직업의 경제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부모님 또는 주된 보호자의 교육수준 효과에서는,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의 교육수준은 자녀들의 직업 가치관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지만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자녀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자녀들에 비해 '생계'보다는 '자아실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효과에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자녀들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자녀들에 비해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직업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은 고등학생 자녀들은 부모들의 직업가치관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직업가치관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우 자녀들도 생계유지보다는 자아실현 가치관을, 부모가 사회참여를 중시하는 경우 자녀들도 생계유지보다는 사회참여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직업가치관, 고교유형, 진로활동, 진로교육, 가족배경과 직업가치관

I. 서론

직업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해왔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는 '돈을 뛰어 넘는 가치'를 갖는 직업,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직업에 대

1)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2)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3)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한 욕구가 있다. Ginzberg·Ginsberg·Axelrod & Herma(1951)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표는 그의 현재 활동들을 미래와 연관시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효과적인 직업선택은 반드시 개인의 가치 및 목표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의사 결정에는 가치관이 게재되어 있어 직업 선택도 타율적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Rosenberg, 1957).

개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구조는 그가 특정한 조직에 소속되어 그 조직 내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Lusk & Oliver, 1974; Ravlin & Meglino, 1989; Schwartz, 1994)고 한다. 고3 학생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결과에서도 직업가치관이 매우 안정적임을 확인(Lindsay와 Knox, 1984)하였다. 반면에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Walsh et al, 1996). Wagman(1965)은 연령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직업선택 과정에서 가치관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업선택 과정이야말로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간의 합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차적인 방편이기 때문이다(Judge & Bretz, 1992).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이 선택한 직업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직업분야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업만족도가 낮게 되므로 진로결정 이전에 직업가치에 대한 탐색과 명료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의 종류와 직업가치와 관련된 개인 변인에 대한 연구였다(강영배, 2004; 김정숙, 2006; 선혜연·황매향·김영빈, 2007; 임은미, 2010).

본 연구에서는 고교유형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그가 속한 사회계층이나 학업성취도보다 재학하는 학교유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Jayasuriya, 1954; Sugarman, 1966)가 이 시대의 한국의 고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이 될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은 학생 설문지의 ‘직업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측정하였다. 된다. 이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던 직업가치관의 척도로서 내재적 가치로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와, ‘사회적 참여’를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로, 외재적 가치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직업가치관의 척도로서 청소년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직업가치

많은 연구들에서 직업가치는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나(Brown, 2002) 흥미, 능력, 성격 특성과 비교하여 덜 주목 받아왔다(Robinson & Betz, 2008; Rottinghaus, Hees, & Conrath,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가치(Work Values)를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정의하고 내적 직업가치와 외적 직업가치로 분류하였다(임언, 정운경, 상경아, 2001). 김정숙(2006)은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질’로 이영애(2007)는 일 또는 직업에 대해 인식, 관점, 가치부여, 선택의 기회에서 기준에 따른 선호도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직업가치를 정의하였다. 즉, 직업가치(Work Values)란? 일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보상과 연관된 중요성을 반영하는(Johnson & Mortimer, 2015)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가치의 하위요소로 성취, 지식추구, 영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자율, 능력발휘, 다양성, 변화지향, 창의성, 더불어 일함, 애국, 사회봉사, 직업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실내 활동, 보수(김정숙, 2006; Daymont & Andrisani, 1984; Hearn & Olzak, 1981; Herzog, 1982; Leuptow, 1980; Marini et al.: 1996)가 있다. Super(1957)는 내적가치로는 이타성, 창의성, 독립성, 지적자극, 심미성, 성취, 관리 등을 외적가치로는 생활방식, 안정성, 위신, 보수 등을 예로 들었다. Kalleberg(1977)는 내적 직업가치로는 일에 대한 흥미, 자율성을, 외적 직업가치로는 임금, 후생복지, 직업 안정 등 물질적 보상이나 조건을 예로 들었다. 김병숙 외(1998)은 내적 직업가치는 직업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적성과 흥미추구, 사회현신, 인간관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 등이 있으며, 외적 직업 가치는 보수, 지위와 같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권력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사회적 인식 중시, 안정추구 등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내적 직업가치의 예로는 능력발휘, 사회봉사, 자율성, 창의성, 지도력 발휘를, 외적 직업가치의 예로는 발전성, 사회적 인정, 다양성, 보수, 안정성, 더불어 일함을 제시하였다(임언, 정운경, 상경아, 2001).

청소년기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업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잠재적 직업선택의 범위를 좁히고, 현실적으로 특정 직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Super, 1990).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이다(김소라, 황영준, 2016). 그런 맥락에서 직업가치를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잠재적인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이끈다(Dawis, 2002) 청소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나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각 직업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한 직업인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자신의 것과 잘 맞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봉환 외, 2010)

성별은 직업가치의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변인으로(김정숙, 2006) 성별과 직업가치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은 보수, 인정, 지위, 독립성을 더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사회봉사, 관계형성 등의 직업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2006; 선혜연, 2007; 양한주, 1988; Duffy & Sedlacek, 2007; Singer & Steffire, 1954; Thompson, 1966; Wagman, 1965).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외재적 직업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Mortimer, 2015)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각각 기대되는 성역할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선혜연 외, 2007).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이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재적 직업가치보다 내재적 직업가치가 더 강화(신혜진, 2014)되거나 외재적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하는데 반해 내재적 직업가치 추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이는 Gottfredson의 진로발달 이론과 일관성을 보인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2. 가정배경과 고교선택

진학과 관련된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계층화 또는 교육기회의 관점에서 상급학교 진학의 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학생의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근·변수용, 2006; 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현, 2002). 어느 사회나 특권적 위치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며,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다(Parkin, 1971). 가정배경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 가구의 소득 등으로 측정된다.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Blau와 Duncan(1967)의 연구 그리고 Sewell과 Hauser(1975)의 위스콘신 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지위성취 연구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김경근, 변수용, 2006). 이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들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최종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도 일관되게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급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기현, 2004; 방하남, 김기현, 2003; 장상수, 2000, 2007).

중학교에서 상급학교인 고등학교로 교육단계를 높이는 데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 계열화(Tracking) 현상을 확인하였다. 방하남과 김기현(2003)은 부의 교육수준과 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 실업계 대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하는 가능성에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이 높을수록 일반고를 선택하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기현, 2004). 장상수(2007)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계급)가 높을수록 자녀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경향이 수십년 간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월소득, 교육

포부,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상, 2009), 학업성취도, 교육포부, 아버지 학력,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송민경, 2009). 빈곤한 가정의 학생 특히,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족 빈곤을 경험한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더 높고(오승환, 김광혁, 2012),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학 동기는 취업, 적성, 부모님의 권유 순으로 높은 동기를 보였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 대학진학, 성적순으로 진학 동기가 높았다(맹희주, 2014).

고등학교 진학은 학생 개인의 결정이며, 주로 학생의 능력, 가정과 학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석영(2012)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등학교 계열을 기준으로 집단 간 배경요인의 차이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임현정(2013)은 학교의 성취압력과 진로교육 요인이 학생의 진학계열 선택에 부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진로교육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가정배경과 직업가치관

환경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직업가치관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에게 가치가 전달되고 동일시되기 때문이다(Kilby, 1993).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인간을 가족,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생태계 안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유기체이며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려는 선천적 경향을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적 직업가치보다 내적 직업가치를 더 지향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선천적 경향성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속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욕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내적 직업가치를 지향하지만 그 반대의 맥락 속에서는 외적 직업 가치를 더욱 지향하게 된다(Kasser, 2002).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치가 가정에서의 사회화 패턴에 영향을 받고, 양육자의 가치를 모방하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Kilby(1993)는 부모 가치에 대한 동일시가 ‘온화함, 덜 권위적인 훈육, 자율성 지지’와 같은 부모의 특정 성향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로서 그 활동 안에서 스스로 지도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입(income) 또는 소득(earnings), 직업적 순위(occupational rankings), 학력(educational level 또는 years of schooling)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학생 개인의 삶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오욱환, 2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계층적 특성, 양육태도,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학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Leslie, 1981). 물론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곧바로 좋은 교육적 환경과 교육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콘(Kohn, 1969)은 사회계층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콘은 중류계급은 자아지향적(self-directional) 가치를 중

시하고, 노동계급은 행위일치적(behavioral conformity) 가치를 선호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류계층의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제력, 자신감, 책임감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큰 꿈과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기를 희망한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능력과 자세를 강조한다(Kohn, 1969). 중류계층의 부모들은 교육을 인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확신하여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한다.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치 추구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냉담하고 비일관적이며 통제적인 부모보다는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을 잘해주는 친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내적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고(Kohn, 1990),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부모보다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부모의 자녀들이 내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한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Williams et al., 2012). 반면, 김정숙(2006)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은 내적가치를 추구하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외적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치 추구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회피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포기할 수 있다(Berrios-Allison, 2005).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 자료 중 학생과 가구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용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유형, 진로교육 및 활동경험, 직업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가구용 자료에서는 아버지(또는 주된 남성 보호자)의 학력, 어머니(또는 주된 여성 보호자)의 학력,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 가치관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결합시킨 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체 10,558명의 고등학생들 중에서 본 분석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포함), 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하였으며, 체육고등학교는 진로교육과 활동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자율고등학교의 경우는 샘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수목적고나 일반고와 비교하였을 때 교육과정 상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최종 분석 자료에 포함된 총 고등학생은 9,066명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별 분포는 다음 절의 <표 1>의 기술통계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유형과 부모 배경이 고등학생 자녀들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둘째, ‘사회적 참여’를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셋째,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주요 독립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유형(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성별(여학생 vs. 남학생),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활동횟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의 교육수준(고졸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이상),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의 교육수준(고졸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이상), 부모님의 직업 가치관(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범주와 동일).

이상의 변수들을 활용해서 본 연구는 다항로지트 분석모형을 적용한다. 다항로지트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경우 준거집단 범주를 기준으로 나머지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항로지트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본 연구는 학교 유형, 진로교육 경험, 그리고 부모의 배경이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를 이용하여 고교유형과 부모교육수준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우선 기술통계 결과는 살펴보면(<표 1> 참고), 본 분석에 포함된 고등학생은 모두 9,06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에서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는 5,128명(약56.6%), 특수목적고등학교 463명(약5.1%), 특성화고등학교 2,426명(약26.8%),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은 959명(약10.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고등학생들의 “직업을 가지는 이유”(직업가치관)를 살펴보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겠다는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54.2%),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약 33.9%)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6.8%)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각각 6.8%와 5.2%로, 직업가치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업을 갖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약 50.6%),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을 선택하였다(약 36.6%). 반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아실현’에 응답하였고(약 49.9%), 두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로 나타났다(약 38.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비슷하게 ‘자

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약60.9%)를 선택하였으나 그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을 직업을 갖는 이유로 선택하였다(약27.3%).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였으며(약63.4%), 두 번째는 '자아실현'(약28.7%)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이며, 다만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생계유지'보다는 '자아실현'을 직업을 갖는데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에서 진로관련 교육 및 활동은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제도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교내 진로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16.2회 정도 진로교육 및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약 16.2회,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약 15.3회, 특성화고 학생들은 약 16.4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약 14.8회 정도 진로관련 교육과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배경관련 변수로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학력,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직업가치관, 그리고 가구소득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버지 또는 남성보호자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약 47.8%이며, 2-3년제 대학은 약 14.8%,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은 약 37.4%로 나타났다. 어머니 또는 여성보호자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약 56.5%, 2-3년제 대학은 약 15.7%,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은 약 27.8%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분포는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또는 남성보호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약43.5%), 그 다음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약 41.1%로 분석되었다. 특수목적고도 추이는 비슷하나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가 4년제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비중이 약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졸이하가 약 10.9%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버지(또는 남성보호자)가 고졸이하인 경우가 각각 약 67.2%,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약 18.7%, 31.1%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어머니(또는 여성보호자)의 학력분포도 아버지의 학력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고의 경우, 고졸이하가 약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약 32.2%로 분석되었다. 특수목적고의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집단이 약 6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이하가 약 20.4%, 2-3년제 대학졸업은 20.4% 정도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어머니(또는 여성보호자)의 학력분포에서 고졸이하가 약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은 나란히 12.7%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의 경우, 고졸이하가 약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약 24.0%로 분석되었다.

직업가치관을 포함하여 자녀들의 가치관은 가족 내에서 형성되며,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미 수없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동

안 부모님과 접촉을 통한 가치관과 문화전수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 가치관과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님(또는 주된 보호자)의 직업가치관과 자녀들의 직업가치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부모님(또는 주된 보호자)가 직업가치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식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약 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약 42.8%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는 약 5.9%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의 경우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자아실현’이 조금 더 높은 약 45.7%로 분석되었다. 특수목적고의 경우도 부모님의 직업가치관이 ‘자아실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약 56.4%). 반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경우는 모두 부모님의 직업가치관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약 53.0%, 53.7%). 그 다음으로는 두 유형의 고등학교 모두에서 부모님의 직업가치관이 ‘자아실현’에 비중을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약 36.2%, 38.2%).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자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약 508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는 평균 약 551만 5천원, 특수목적고는 평균 696만 7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성화고는 평균 가구소득이 약 404만 7천원, 마이스터고는 평균 약 448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전체(N=9066)			일반고등학교(N=5128)			특수목적고등학교(N=463)			특성화고등학교(N=2426)			마이스터고등학교(N=959)			
	평균	SD	최소 최대	평균	SD	최소 최대	평균	SD	최소 최대	평균	SD	최소 최대	평균	SD	최소 최대	
직업을 갖는 이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54.2%	54.2%	0 1	50.6%	50.0%	0 1	38.3%	48.7%	0 1	60.9%	48.8%	0 1	63.4%	48.2%	0 1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5.2%	21.9%	0 1	6.2%	24.1%	0 1	7.2%	25.9%	0 1	3.4%	18.1%	0 1	2.3%	14.9%	0 1	
자아실현을 위해서	33.9%	47.4%	0 1	36.6%	48.2%	0 1	49.9%	50.1%	0 1	27.3%	44.5%	0 1	28.7%	45.3%	0 1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6.8%	25.2%	0 1	6.5%	24.7%	0 1	4.6%	21.0%	0 1	8.4%	27.8%	0 1	5.6%	23.0%	0 1	
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56.7%	49.5%	0 1	-	-	-	-	-	-	-	-	-	-	-	-	-
특수목적고등학교	5.3%	22.3%	0 1	-	-	-	-	-	-	-	-	-	-	-	-	-
특성화고등학교	27.3%	44.5%	0 1	-	-	-	-	-	-	-	-	-	-	-	-	-
마이스터고등학교	10.7%	30.9%	0 1	-	-	-	-	-	-	-	-	-	-	-	-	-
진로교육 및 활동경험(횟수)	16.2	2.6	0 22	16.2	2.3	0.0 22.0	15.3	2.1	8.0 21.0	16.4	2.9	0.0 22.0	14.8	2.3	11.0 22.0	
남성보호자 교육수준																
고졸이하	47.8%	50.0%	0 1	41.1%	49.2%	0 1	10.9%	31.2%	0 1	67.2%	46.9%	0 1	53.3%	49.9%	0 1	
2-3년제 대학	14.8%	35.5%	0 1	15.5%	36.2%	0 1	9.6%	29.5%	0 1	14.1%	34.8%	0 1	15.5%	36.2%	0 1	
4년제 대학교 이상	37.4%	48.4%	0 1	43.5%	49.6%	0 1	79.5%	40.4%	0 1	18.7%	39.0%	0 1	31.2%	46.3%	0 1	
여성보호자 교육수준																
고졸이하	56.5%	49.6%	0 1	50.7%	50.0%	0 1	20.4%	40.4%	0 1	74.6%	43.5%	0 1	59.3%	49.1%	0 1	
2-3년제 대학	15.7%	36.4%	0 1	17.1%	37.7%	0 1	14.1%	34.8%	0 1	12.7%	33.4%	0 1	16.6%	37.2%	0 1	
4년제 대학교 이상	27.8%	44.8%	0 1	32.2%	46.7%	0 1	65.5%	47.6%	0 1	12.7%	33.3%	0 1	24.0%	42.8%	0 1	
보호자: 직업을 갖는 이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46.3%	49.9%	0 1	42.8%	49.5%	0 1	32.5%	46.9%	0 1	53.0%	49.9%	0 1	53.7%	49.9%	0 1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5.0%	21.8%	0 1	5.6%	23.0%	0 1	7.0%	25.5%	0 1	4.0%	19.5%	0 1	3.4%	18.2%	0 1	
자아실현을 위해서	42.8%	49.5%	0 1	45.7%	49.8%	0 1	56.4%	49.6%	0 1	36.2%	48.1%	0 1	38.2%	48.6%	0 1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5.9%	23.5%	0 1	5.8%	23.4%	0 1	4.1%	19.9%	0 1	6.8%	25.2%	0 1	4.6%	21.0%	0 1	
가구소득(만원)	508.2	361.7	7 8000	551.5	366.2	21 8000	696.7	482.4	20 6000	404.7	310.9	7 7000	448.4	306.1	30.0 5000	
로그화된 가구소득	6.1	0.6	1.9 9.0	6.2	0.6	3.0 9.0	6.4	0.6	3.0 8.7	5.8	0.6	1.9 8.9	6.0	0.5	3.4 8.5	

2. 다항로지분석결과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가치관과 고교유형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나타나있다. 종속변수인 직업가치관(직업을 가지는 주된 이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우, 두 번째는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우, 세 번째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우이다. 본 논문은 다항로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비교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기 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참여’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유형의 효과를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참여’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며, ‘자아실현’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생계보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사회적 참여’보다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자아실현’보다도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수강하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구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참여’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은 직업의 경제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직업가치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 중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부모님의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자산이 청소년기 자녀들의 전반적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직업가치관은 일반적 가치관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며,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와 직업가치관은 자녀들의 직업 가치관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와 모의 학력수준, 경제적 지위를 측정할 가구소득, 그리고 부모의 직업가치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부모님 또는 주된 보호자의 교육수준 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의 교육수준은 자녀들의 직업 가치관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자녀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자녀들에 비해 ‘생계’보다는 ‘자아실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의 학력효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자녀들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자녀들보다 ‘생계’를 중시하는 직업가치관보다는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직업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고졸이하 학력과 2-3년제 대학 학력은 자녀들의 직업가치관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가치관이 자녀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보다 ‘사회적 참여’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자녀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생계’보다는 ‘사회적 참여’나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생계’보다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은 ‘생계’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더 중요한 직업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생계’보다 ‘사회적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은 ‘생계’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을 유의미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직업가치관이 자녀의 직업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의 효과를 살펴보면, 로그화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생계’보다는 ‘자아실현’을 직업가치관으로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생계’보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가구소득을 보이는 가정의 학생들은 직업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보다는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인정이라는 직업의 비경제적 측면에 관심을 더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다항로지분분석결과

변수	사회 봉사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
여학생	0.183 [0.106]+	0.223 [0.051]***	0.08 [0.092]
학교유형	학교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0.404 [0.210]+	0.389 [0.110]***	-0.382 [0.259]
특성화고등학교	-0.781 [0.143]***	-0.295 [0.062]***	0.311 [0.104]**
마이스터고등학교	-1.101 [0.233]***	-0.298 [0.086]***	-0.216 [0.164]
진로교육 및 활동참여 경험(횟수)	-0.044 [0.021]*	-0.021 [0.010]*	-0.012 [0.018]
남성보호자 학력(준거집단: 고졸이하)			
2-3년제 대학	0.016 [0.155]	0.011 [0.076]	-0.02 [0.137]
4년제 대학교 이상	-0.128 [0.141]	0.113 [0.067]+	0.106 [0.120]
여성보호자 학력(준거집단: 고졸이하)			
2-3년제 대학	0.262 [0.148]+	0.062 [0.075]	0.225 [0.130]+
4년제 대학교 이상	0.042 [0.149]	0.158 [0.069]*	0.107 [0.127]
보호자: 직업을 갖는 이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1.003 [0.186]***	0.336 [0.116]**	0.041 [0.220]
자아실현을 위해서	0.321 [0.114]**	0.536 [0.053]***	0.109 [0.097]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0.103 [0.258]	0.252 [0.109]*	0.555 [0.165]***
로그화된 가구소득	-0.055 [0.104]	0.173 [0.050]***	0.392 [0.089]***
상수	-1.376 [0.715]+	-1.561 [0.344]***	-4.525 [0.620]***
<i>N</i>		9066	
<i>-2Log-Likelihood</i>		16873.394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 ()은 표준오차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V. 요약 및 결론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다(Hoyt, 1977).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Rosenberg, 1957),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직업선호도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Perrone, 1965)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교육성취(educational attainment) 수준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평생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Haveman & Wolfe, 1994). 이는 지난 수십 년 간 교육기회의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온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개인의 교육수준은 이후의 직업적 지위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방하남·김기현, 2001).

본 연구는 고교 유형별 진로교육 경험 그리고 부모의 배경이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자아실현’,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회적 인정’,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참여’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은 직업의 경제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부모님 또는 주된 보호자의 교육수준 효과에서는,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의 교육수준은 자녀들의 직업 가치관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지만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자녀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자녀들에 비해 ‘생계’보다는 ‘자아실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효과에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자녀들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자녀들에 비해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직업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의 직업가치관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직업가치관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우 자녀들도 생계유지보다는 자아실현 가치관을, 부모가 사회참여를 중시하는 경우 자녀들도 생계유지보다는 사회참여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

-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9-142.
- 김병숙, 강일규, 진미석, 장원섭, 김해동, 권진희, 정윤경, 정현식, 이양구 (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운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소라, 황영준(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 김정숙 (2006). 중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맹희주(201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분석. *교과교육학연구* 제18권 3호 pp.579-599
- 방하남·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방하남, 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 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 연구*. 제8권 제2호. 549-563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2009).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아시아교육연구*, 10권 1호. 155-173.
- 송민경(2009). 청소년기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고교 계열 선택 및 고졸 이후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51-81.
- 신혜진. (2014).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추이와 부모애착의 시간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4), 285-308
- 안선영·이경상(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 결정요인 및 결과: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81-99.
- 양한주 (198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택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석영(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학 희망계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오승환, 김광혁(2012). 가족빈곤이 고교진학 유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4), 1-20.
- 오욱환(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애(2007). *전문계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임은미(2010). “청소년 직업가치의 유형 및 변화와 전공 선택 경향에 따른 직업가치 차이.” *진로교육연구*, 23(1), 61-77.

- 임현정(2013).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의 결정변인 탐색 : 학교의 진로교육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40권 제1호. 25-48
- 장상수(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 671-708.
- 장상수(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2(2), 118-146.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and Sons. 590
- Brown, D. (Ed.). (2002).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Dawis, R. V. (2002). Person-environment-correspondence theory.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427-464.
- Daymont, T. N. & Andrisani, P. J. (1984). Job preference,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gap in earning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3), 408-428.
- Duffy, R. D., & Sedlacek, W. E.(2007) "The work values of first year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 359-364.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Haveman, R. & Wolfe, B. (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earn, J. C. & Olzak, S. (1981). The role of college major departments in the reproduction of sexual inequality, *Sociology of Education*, 54(3), 195-205.
- Herzog, A. R. (1982). High school seniors' occupational plans and values: trends in sex differences 1976 through 1980, *Sociology of Education*, 55(1), 1-13.
- Hoyt, K. B.(1977).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Jayasuriya, J. L.(1954) *A study of adolescent ambition, levels of aspiration and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Johnson, M. K., & Mortimer, J. T. (2015). Reinforcement or compensation? The effects of parent's work and financial conditions on adolescents' work values during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89-100.
- Judge, T. A. & Bretz, R. D.(1992). Effects of work values on job choice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7. No. 3. 261-271
- Kalleberg, A. L.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1), 124-143.
- Kasser, T. (2002). Sketches for a self-determination theory of values. In E. L. Deci &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6),907.

- Kilby, R. W. (1993). *The study of human value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Kohn, A. (1990). *The brighter side of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Kohn, M. L.(1969). *Social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l.: Dorsey Press, 1969. 315 p.
- Leuptow, L. B. (1980). Social change and sex-role change in adolescents orientations toward life, work, and achievement: 1964-1975,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1), 48-59
- Leslie, J. H.(1981). The secular values of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1), 25-44.
- Lindsay, P., & Knox, W. E.(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work values among adults: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918-931.
- Lusk, E., & Oliver, B. (1974). American managers' personal value systems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7, 549-554.
- Marini, M. M., Fan., Finley, E., and Beutel, A. M. (1996). Gender and job values, *Sociology of Education*, 69(1), 49-65.
- Parkin, F .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London : MacGibbon & Kee.
- Perrone(1965). Values and occupational preference of junior highschool girl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4(3), 253-257.
- Robinson, C. H, & Betz, N. E.(2008).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Super's Work Values Inventory-Revis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56-473.
- Rosenberg, M.(1957). *Occupations and values*. Glenco, Ill.: The Free Press. Perrone(1965). Values and occupational preference of junior highschool girl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4(3), 253-257.
- Rottinghaus, P. J., Hees, C. K., & Conrath, J. A.(2009). Enhancing job satisfaction perspectives: Combining Holland themes and basic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139-151
- Sewell, W. H., &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 Singer, S. L., & Steffire, B. (1954). Sex differences in job valuesad desire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 Sugarman, B.(1966) Social class, values as related to achievement and conduct in school, *Sociological Review*, 14, 287-301.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197-261). San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O. E. (1966). Occupational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4(8).
- Wagman, M.(1965). Sex and age difference in occupational values, *Personal & Guidance Journal*, 44, 258-262.
- Walsh, B. D., Vacha-Haase, T., Kapes, J. T., Dresdon, J. H., & Thompson, W. A.(1996). The values scale: Difference across grade levels for ethnic minority students,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263-275.

Williams, K. E., Ciarrochi, J., & Heaven, P. C. (2012). Inflexible parents, inflexible kids: A 6-year longitudinal study of parenting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1053-106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가치관 검사개발 보고서. 임언, 정운경, 상경아(2001).

❖ Abstract ❖

The Effect of Senior High School Types and Parents' Background on the Work Value among Senior High Schoolers

Mi-Kyung Moon, Hyunjoo Min, Sung-sook Han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nior high school types and family background(parents' educational levels, parents' work value, and family income) on job values among senior high schoolers using the KEEPPII 2018 data which have collect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analyses present as follow: first, Special Purpose High School students are more likely than the General High School studnets to value "self-actualization" rather to value 'work for living'.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students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are more likely to put a value on "work for living" than othe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lso, as high schoolers attain the more experiences of career education and activities at school, they are likely to put a greater value on 'work for living' than any other work value. Second, the result has shown that parents with 4-year university or more education lead their children to have "self-actualization" for their work value: high schooler are likely to value "self-actualization" for their job than other value when their mother has achieved 4-year university or more education. Finally, parents' work value largely influence their children's work value. High schoolers are likely to emphasize on self-actualization than other value when their parents regard it as an important work value. Altogether, this study highlights that high school types- whether it has an orientation toward academic activities or job activities and family background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high schoolers' work value for their future career.

Key words: work value, high school type, career activity, career education, Parents' work value and children's work value